

# 근대사회성격론

담당교수 : 배민재

# 한국 근대사회의 이해를 위한 출발점

“근대”

- 한국의 근대는 언제부터인가?
- 어떤 시기(혹은 사건)을 기점으로 우리는 '근대'라고 부르는가?
- '근대'는 무엇이며,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?

# 韓·中·日(동아시아)의 근대

- 내재적 발전단계(일본학계, \*정체성론)

\* 한국이 세계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시대별로 단계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, 역사적으로 정체되어 왔다는 주장

- 세계사적 환경(세계체제론, *world system theory*)

: "핵심-주변-반주변", 지리적 계층구조.

- 구조적 외압 : 서구의 동아시아 침략(西勢東漸)

☞ 한국 - 식민지(주변)

☞ 중국 - 반식민지(주변)

☞ 일본 - 제국주의 (半주변)

∴ 동아시아의 역사 자체가 수동적이라는 결론

But 동아시아 각국은 내부로부터의 근대화 요구가 있었으며,  
변혁을 통해 근대를 수용하였음

- 동아시아 삼국 간의 관계 - 근대화의 과정에서 상호 영향

#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

- 산업혁명, 자본주의의 성장
- 서구의 아시아 진출 : 원료공급지 & 상품의 시장
- 西勢東漸
  - ▷ 1842년의 남경조약
    - 1840년 제1차 아편전쟁
    - 1851~1864 태평천국의 난
    - 1856 제2차 아편전쟁
  - ▷ 1854년 미일화친조약
    - 1858년의 미일수호통상조약 - 1853~1856 크림전쟁, 미국 불참
  - ▷ 1876년의 조일수호통상조약 - 운요호 사건(1875)

# 양절체제(兩截體制) & 청일전쟁(1894)

- 화이(華夷)질서

ex)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 (1882) : "이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(屬邦)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, 각 대등 국가간의 일체 균점(均霑)하는 예와는 다르다."

- 만국공법 (萬國公法)질서

→ "양절체제(兩截體制)" : 당시 조선이 처한 이중적 국제질서(조약체제도 아니고 조공체제도 아닌) by 유길준

- 청일전쟁의 의의를 둘러싼 논쟁

-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재편, 근대로의 이행(일본학계)

: 일본이 조선을 화이질서에서 해방시켰다고 주장

- 조선을 화이질서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님(한국학계)

: 청과 조선은 1883년 이후 이미 전통적인 화이질서에 입각한 관계가

ex) 袁世凱(위안스카이)의 조선 내정간섭은 오히려 근대적 식민지배를 시도한 것

★조선을 근대적 식민지로 획득하려는 중국과 일본의 충돌★

# 중국의 '중체서용(中體西用)'

- 해방론(海防論) – 아편전쟁 패배 이후 임칙서(林則徐) 등이 주장, 서양의 기  
선이다 대포 제작을 배워야
- 1860년대 양무운동의 '서용(西用)'
- : 자연과학과 기술, '서용(西用)', 실용적 측면
- 1870-80년대의 양무운동의 '서용(西用)'  
: 근대적 상공업제도, 정치제도(초기변법론)
- 무술변법파(戊戌變法派)의 '서용(西用)'  
: '의회'라는 서양의 정치제도 도입, 중국 정치체제 개혁 주장  
☞ '서용(西用)'의 범위는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가?
- 청일전쟁 이후 급진 변법파의 '서용(西用)'  
: 민권과 헌법 거론
- ∴ 중체서용론의 재구성  
: '중체'(유교적 윤리와 정치체제) 를 지키려는 보수적 논리로

# 동도서기론(東道西器論)

- 초기의 개화사상 - 중국 해방론의 영향
- 박규수(朴珪壽) - "사람들이 말하기를 西法이 동으로 오면 오랑캐와 금수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지만, 내 생각으로는 東敎가 서양에 들어갈 조짐이 있어 오랑캐와 禽獸가 장차 모두 사람이 될 것"
  - 서법과 동교를 대비적으로 사고하고, 그 동교가 장차 서양으로 스며들어 서양인까지 교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
  - 동교의 손상 없이 서법의 수용을 인정
- 강화도조약 이후- 부국강병의 개화 정책 vs 척사론

# 동도서기론의 논리 구조

- 신기선(申箕善)의 「農政新編序」(1881)

동도(東道) vs 서기(西器)라는 구도

→ 서법(西法) ≠ 기독교의 수용, 서법은 문물제도라는 의미의 기(器), 또는 그것을 제작·운용하는 방법임

→ 서교(西教)는 학문·사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道와 같은 것, 또는 道와 연관되는 것

∴ 서법 또는 서기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東道를 서교나 서도로 대체함을 의미하지 않는다

∴ 동도와 서기가 서로 결합할 수 있다

∴ 서양의 근대적 생산력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서기로 인해 동도가 침해받을 수는 없는 것, 동도가 서기보다 우선한다



# 갑신정변(1884) 이후의 동도서기론

- 변법개화파 : 갑신정변(1884)

“일본은 변법한 이후로 모든 것을 更張했다”

- 김옥

균, 『治道略論』 (1882)

- 근대 국가로의 변혁 모델을 일본의 메이지유신에서 구함
- 정치 제도와 경제제도의 변혁- 입헌군주제로의 개혁 주장
- '동도'에 대한 침해를 용인
- 광무개혁 : 구본신참(舊本新參), 동도 보전의 논리

# 일본의 '화혼양재(和魂洋才)'

- 1850년대 사쿠마 쇼잔(佐久間象山)
  - '동양 도덕, 서양 예술(東洋道德, 西洋藝術)'
- 요시다 쇼인(吉田松陰)의 '화혼양재론':
  - 사쿠마 쇼잔의 영향을 받아 서양의 과학기술, 특히 무기와 군대 조직의 수용을 주장
  - '화혼(和魂)'을 통한 존왕심(尊王心) 확립 → 막부 타도

- 1880년대 후쿠자와 유키치(福澤諭吉)의 '탈아론(脫亞論)'

"오늘날의 (국제 관계를) 도모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이웃 나라의 개명을 기다려 더불어 아시아를 흥하게 할 여유가 없다. 오히려 그 대오에서 탈피하여 서양의 문명국들과 친睦을 같이 하여 저 지나(支那, 청)와 조선에 대하는 법도 이웃 나라라고 해서 특별히 사이 좋게 대우해 줄 것도 없고, 바로 서양인이 저들을 대하듯이 처분을 하며 될 뿐이다. 나쁜 친구를 사귀는 자는 더 물어 오명을 피할 길이 없다.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를 사절해야 한다."

- 막부 탈도 이후 허수아비나 다름없던 천왕의 왕정 복고 → 정치체제 변혁이라는 측면에서 큰 갈등 없이 입헌군주제를 수용
- 1890년 교육칙어(教育勅語)
  - : '충효일체론(忠孝一本論)', 국민국가의 내적(內的) 통합을 위한 '화혼(和魂)'